

19일 선출제 논의 재개, 21일 이사회 소집

〈학교법인 경희학원〉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19일 구성원 대표단과 법인의 총장 선출제 단일화 논의(선출제 논의)가 재개된다. 이는 선출제 논의가 지난 9월 13일 2차 결렬 사태를 맞은지 68일 만이다.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 이성근(교수의회 의장) 위원은 지난 15일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성원 의견 수렴 단계가 마무리됐다”며 “이에 법인 공영일 이사장과 조여원 상임이사가 선출제 논의를 19일부터 이를간에 걸쳐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19일 논의에서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총장 선출안’을 수정한 ‘범대위 총장 선출 합의안’을 법인 측에 제안할 예정이다. 앞서 범대위는 지난 13일 구성원 의견 수렴 간담회에서 ‘대평의 총장 선출안’ 중 총장추천위원회의 각 구성원 총장 임기 만료 이전에 차기 총장 선출제가 확정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하지만 법인이 지난 7월부터 구성원 투표 시행에 대한 거부감을 지속적으로 표했기 때문에 이번 19일 선출제 논의가 순탄치만은

2차 결렬 이후 68일 만에 재개된 총장 선출제 단일화 논의 가장 큰 쟁점은 ‘범대위 합의안’에 대한 법인 측 수용 여부 합의 이뤄지면 총장 임기 만료(23일)부터 선임 절차 ‘시동’ 선출제 협상 불발 시에는 총장 공석 사태 장기화 우려도

수용 여부다.

만약 법인이 구성원 투표 방안을 수용한다면 오는 21일 열릴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대행을 선임하는 것뿐만 아니라 차기 총장 선출제까지 확정될 가능성 크다. 그

렇게 되면 23일 조인원 총장의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총장 선임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인 심의기획실 이호 실장은 “현재 법인 이사진들은 이번 논의에서 합의를 이끌어내 선출제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조인원 총장 임기 만료 이전에 차기 총장 선출제가 확정되는 것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 16일 밝혔다.

하지만 법인이 지난 7월부터 구성원 투표 시행에 대한 거부감을 지속적으로 표했기 때문에 이번 19일 선출제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구성원 투표 시행을 두고 법인이 또다시 구성원과 의견을 보인다면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 운영 전반에 크게 정체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명을 요구한 교수는 “총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되면 인사, 재정, 징계 등 학내 주요 정책들이 한동안 결정되지 못할 것이다”며 “총장 직무대행이 선임되더라도 일상적 업무를 대신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이번 논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난 8월부터 이미 두 차례나 선출제 논의의 결렬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구성원 대표단과 법인이 또다시 파국으로 치닫게 될 공산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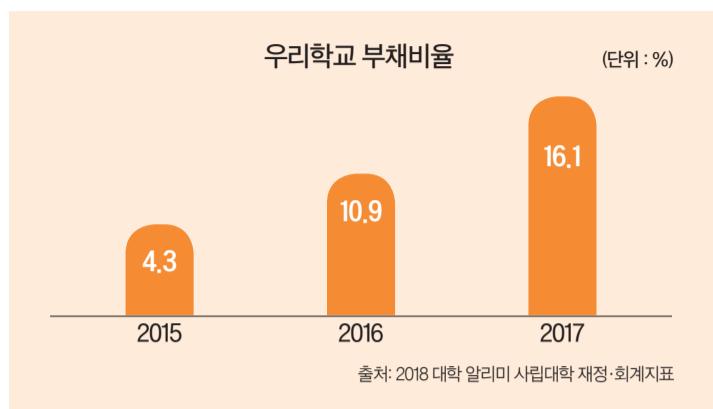
지난 8월 7일 구성원 대표단과 법인은 구성원 투표 방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1차 결렬 사태에

이르렀다. 이어 조인원 총장이 4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9월 4일부터 선출제 논의가 다시 진행됐지만 대평의에 소속되지 않은 일부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 과정에서의 참여를 보장해달라며 기존 대평의 총장 선출안에 불만을 제기했다.

여기에 9월 13일 법인 공영일 이사장이 돌연 “완전한 구성원 의견 수렴 전까지 선출제 논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선출제 논의는 9월 만에 또 다시 결렬 사태를 맞았다.

이후 조인원 총장이 “구성원 의견 수렴에 대학이 직접 나서겠다”며 대화 테이블을 주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뚜렷한 성과없이 시간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각 구성원 대표단은 “대평의 총장 선출안을 기본으로 구성원 전체의 단일안을 마련하겠다”며 지난 7일 범대위 구성에 합의 후 13일 구성원 의견 수렴이 마무리됐다.

범대위 이성근 위원은 “만약 이번 논의에서 법인이 구성원 투표 방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투쟁에 임할 것이다”며 “그 때부터는 범대위 또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 부채비율

(단위 : %)

우리학교 부채비율 16.1% 재정예산처 “10년 내 상환 가능”

박혜림 기자 apricot12@khu.ac.kr

원, 2016년 약 5천억 원, 2017년 약 4천9백억 원으로 3년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총부채 액수는 2015년 약 1천7백억 원에서 2016년 약 2천억 원, 2017년 약 2천3백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 부채비율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SPACE21 캠퍼스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총 500억 원 상당의 기채를 발행했다. 우리학교 2017학년도 결산공고에 따르면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사립대학 중 부채비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 보유 비중에 비해 타인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무구조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최근 2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4.3%에 불과하던 부채비율은 2016년 10.9%, 2017년 16.1%로 증가했다. 2년 새 11.8%p가 증가한 꼴이다.

서울 소재 총 31개 사립대학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3%로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집계된 케이씨대학교, 18.8%의 서울한영대학교에 이어 우리대학 순이었다. 증가 폭만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년 사이 우리학교 상승폭은 11.8%p로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광운대학교가 11.4%, 세종대학교가 7%p로 뒤를 이었다.

우리학교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총 부채액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은 1년 이내에 지급되리라 기대되는 부채를 제외한 총부채를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즉 총부채 액수와 기본금 액수가 부채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학교 기본금 액수는 2015년 약 4천8백억

원, 2016년 약 5천억 원, 2017년 약 4천9백억 원으로 3년간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총부채 액수는 2015년 약 1천7백억 원에서 2016년 약 2천억 원, 2017년 약 2천3백억 원으로 증가한 것이 부채비율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SPACE21 캠퍼스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하나은행으로부터 총 500억 원 상당의 기채를 발행했다. 우리학교 2017학년도 결산공고에 따르면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16.1%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사립대학 중 부채비율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치다.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자기자본 보유 비중에 비해 타인자본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무구조가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립대학 재정회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우리학교 부채비율은 최근 2년 사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4.3%에 불과하던 부채비율은 2016년 10.9%, 2017년 16.1%로 증가했다. 2년 새 11.8%p가 증가한 꼴이다.

서울 소재 총 31개 사립대학 가운데 3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9.3%로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집계된 케이씨대학교, 18.8%의 서울한영대학교에 이어 우리대학 순이었다. 증가 폭만 보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2년 사이 우리학교 상승폭은 11.8%p로 가장 급격히 증가했다. 광운대학교가 11.4%, 세종대학교가 7%p로 뒤를 이었다.

우리학교 부채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총 부채액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부채비율은 1년 이내에 지급되리라 기대되는 부채를 제외한 총부채를 기본금(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으로 나눈 비율이다. 즉 총부채 액수와 기본금 액수가 부채비율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 우리학교 기본금 액수는 2015년 약 4천8백억



“내 고사장은 어디?”

지난 17일과 18일에 2019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가 양 캠퍼스 교내 및 외부 고사장에서 실시됐다. 입학처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9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은 총 44,652명이 지원해 57,994명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강래완 기자 krw97@khu.ac.kr

제51대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 확정…서울캠 3파전, 국제캠 경선, 총여 선거 또 다시 무산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2019학년도 학생회 선거 후보자 등록이 마무리됐다. 제51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 선거는 3개 선거운동본부(선본)가 후보로 등록했고, 국제캠퍼스(국제캠) 총학 선거는 2개 선본의 경선으로 치러진다.

이번 서울캠 총학 선거에는 ‘경희대로’, ‘더함’, ‘메이커(Make-KHU)’ 3개 선본이 출마한다. ‘경희대로’ 선본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와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후보, ‘더함’ 선본 김도엽(정치외

교학 2016) 정후보와 최지선(아동가족학 2017) 부후보, ‘메이커’ 선본 임선구(경영학 2014) 정후보와 박창민(정보디스플레이학 2017) 부후보가 출마한다. ▶관련기사 4면

국제캠 총학 선거는 ‘이룸’ 선본과 ‘CLEAR’ 선본의 경선으로 진행된다. ‘이룸’ 선본 전완주(일본어학 2015) 정후보와 이자은(산업경영공학 2015) 부후보, ‘CLEAR’ 선본 유진우(정보전자신소재공학 2017) 정후보가 이번 국제캠 총학 선거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2019학년도 양 캠퍼스 총여학생회

(총여) 선거는 모두 후보자 미등록으로 무산됐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1일부터 이어졌던 총여 공백이 1년 이상 장기화될 전망이다. 지난 2018학년도 선거에도 역시 양 캠퍼스 총여 모두 후보자 미등록으로 선거가 무산된 바 있다.

동아리연합회 선거는 서울캠과 국제캠 모두 단선으로 치러진다. ‘네트워크(Networ;KHU)’ 선본 유세인(국어국문학 2016) 정후보와 이동훈(지리학 2017) 부후보가 2019학년도 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 선거에 출마한다. 2019학년도 국제캠 중앙동아리연합회 선거도 단선으로

‘이룸’ 선본의 박예림(국제학 2017) 정후보와 이수빈(체육학 2017) 부후보가 출마한다.

서울캠과 국제캠 학생회 선거가 각각 지난 13일, 16일 후보자 등록을 마침에 따라 2019학년도 양 캠퍼스 학생회 선거는 현재 선거운동기간에 본격 돌입했다. 서울캠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3일까지 9일간, 국제캠은 지난 1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7일간이 선거운동 기간으로 정해졌다. 이후 투표기간은 서울캠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국제캠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로 양 캠퍼스 모두 3일에 걸쳐 진행된다.

〈제51대 학생회 선거 후보자 명단〉

	서울캠퍼스 (정후보, 부후보)	국제캠퍼스 (정후보, 부후보)
총학생회	경희대로(김수혁, 김영우)	이룸(전완주, 이자은)
	더함(김도엽, 최지선)	CLEAR(전지웅, 최승은)
	Make_KHU(임선구, 박창민)	
동아리연합회	Networ;KHU(유세인, 이동훈)	이룸(박예림, 이수빈)
총여학생회	-	-

시선

사설

법인은 구성원 안에 응답하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학교는 여태 없었던 갖은 변곡점을 겪을 예정이다. 23일, 현 조인원 총장이 12년만의 임기 종료를 앞둔 가운데, 19일부터 이틀 간 구성원 대표단체들이 한데 모여 구성한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와 법인이 차기 총장 선출제 개정안을 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을 차린다. 협상이 잘 이뤄진다면 21일 있을 법인 이사회에서 총장 선출제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해진 수순대로 총장 권한대행도 선임된다.

수면 위로 부상한지 반년, 총장 선출제 개정 논의는 소음을 내면서도 조금씩 움직여왔다. 신임 총장 없이 현 총장 임기 종료라는, 여태 없었던 일선을 넘어서는 사태가 현실화됐지만 범대위가 마련한 새로운 개정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인 이사회는 이에 응할 필요가 있다.

총동문회, 총민주동문회, 교수의회, 노동조합, 통합 노동조합,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양 캠퍼스 총학생회, 서울캠퍼스 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국제캠퍼스 대학원 총학생회까지 학내 10개 구성원 대표 단체가 개정안 단일화 합의에 성공했다. 학내 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총장 선출제안을 구성원 단체들이 모여 만들었다. 그간 법인과 대학이 문제를 제기했던 구성원 단체 간 의견 수렴이 합의안의 형태로 완료된 것이다.

그저 모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공고하기만 해 보였던 기득권을 다소 내려놓고 새로운 자리를 마련하는 양보도 보았다. 교수 단체의 의결 비율은 낮아졌고 직원노조는 통합노조와 경희의료원노조에게 지분을 양보했다. 총장후보주천위원회에 구성원과 법인의 의결권을 동률로 설정하고 최종 선임권한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법인에 남기며 법인의 권한도 존중했다.

무엇보다 구성원 참여를 통한 총장 선출이라는 대학의 민주화는 시대적 요구임을 직시해야 한다. 성신여대, 이화여대, 상지대 등이 직선제를 도입했고 동국대 총학생회 회장은 고공농성을 벌이며 이를 요구하고 있다. 대학가에 부는 새로운 민주화의 바람을 무시할 수 없다.

총장은 경희대에 몸담고 있는 교수, 직원, 학생 약 3만 명의 구성원과 30만 명 동문을 대표한다. 사학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여지껏 구성원 대표 선출에 구성원의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이 의문스럽게 여겨질 정도다. 선출 과정부터 구성원이 참여하고 중요한 의사를 표시한다면, 그렇게 선출된 총장이라면 보다 더 구성원을 위한 정책과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학원의 민주화'를 첫 번째 가치로 내건 우리 대학이 그간 보였던 '정치화에 대한 우려'는 구성원에 대한 불신을 낱낱이 보이는 자태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을 신뢰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구성원 대표 단체들이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였으니 이제는 법인 이사회가 응답할 차례다.

총장 선출제 논의의 재개를 결정한 법인 이사회의 용단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진정 개정안 도출로 이어지길 바란다. 여전히 선출안 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법인이다. 그만큼 다시 마련된 논의 테이블에 앉을 법인 이사회 관계자들의 책무는 막중하다. 거의 다 왔다. 경희학원 역사 70년 만에 학원의 민주화라는 새로운 역사를 그 스스로의 손으로 쓸 수 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란다.

대학은 지금

배척으로 얼룩진 학생 사회

안나연 기자 na@khu.ac.kr

알몸으로 건물에 출입한 뒤 사진을 찍어 SNS에 게재한 '알몸남' 사건 이후 동덕여대는 외부인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음식 배달원도 안돼" "식당이 무슨 죄" 동덕여대 외부인 출입금지 첫날/조선일보, 2018.10.29.) 지난달 29일 이후 동덕여대에 방문하는 모든 외부인은 경비실에 용무를 말한 뒤 신분증을 맡기고 방문증을 받아야 한다. 동덕여대 재학생은 정문과 후문을 제외한 출입문이 봉쇄된 것에 불편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대체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근 거주 중인 주민과 배달에 주력하는 식당 일부는 불편을 역력히 토로했다.

중앙대에선 실습생과 일부 유학생을 유권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실

만평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양여진 기자

이 주의 주제 - 길고양이와 공존

길고양이와 우리의 삶

양여진 기자

clcl@khu.ac.kr

'랜선집사'.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이 키우는 고양이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즐겨보는 사람을 말하는 신조어다. 최근 랜선집사와 같은 '뷰니멀족'이 증가하며 강아지, 고양이만을 활영한 컨텐츠에 대한 인기가 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에 고양이 관련 컨텐츠가 올라오면 "나만 고양이 없어"라는 동일한 댓글이 수없이 달린다. 과거에 고양이를 요물이라고 여기던 때와 비교해 보면 세상이 많이 변화한 것을 느낀다.

나아가 우리 주변 길고양이를 볼보는 사람도 늘고 있다. 이들은 캣맘, 캣대디라 불린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사당에는 길고양이 급식소가 설치됐고, 대학마다 길고양이 돌봄 동아리도 증가하고 있다. 4개월 전 서울캠퍼스에서도 길고양이 돌봄동아리 쿠캣(KHU-CAT)이 사람과 길고양이 간의 공생을 위해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 이면에는 유기동물 문제가 있다. 유기동물 통계사이트 포인핸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에서 구조된 유기동물은 방사된 길고양이를 제외하고 10만 256마리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8만 7,783마리와 비교해 14.2%인 1만 2,473마리가 증가한 수치다.

심지어 길고양이 학대는 끊이지 않는다. 대학교

길목에 고양이 목을 절단한 토막사건, 길고양이에게 불을 붙히거나 안구를 적출하고, 다리를 골절시키는 등 잔인한 학대가 넘쳐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 보호단체와 캣맘, 캣대디, 길고양이 동아리가 사회 곳곳에서 나서고 있다. 우리학교 쿠캣(KHU-CAT)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인간과 길고양이의 공존을 위해 다양하게 활동한다. 서울캠퍼스 4곳에 배치된 길고양이 급식소에 정기적으로 사료를 공급한다. 또한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를 예방하기 위해 TNR을 시행하고 있다. TNR은 trap-neuter-return의 약자로 길고양이를 인도적인 방법으로 포획하여 중성화수술 후 원래 포획한 장소에 풀어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대학의 3대 역할은 교육, 연구, 사회공헌이다. 쿠캣(KHU-CAT)의 활동은 소소한 듯 보이지만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동물과 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서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길고양이는 소음, 배설물을 발생시키고 쓰레기봉투를 뜯는다. 이는 그들에 대한 증오를 키우고 학대로 이어진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사람에게서 버려진 고양이들이 길고양이가 됐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주택가 주변에서 맴돌며 음식물 쓰레기로 연명하며 살기 위해 노력했을 뿐이라는 것. 이 도시는 우리의 삶의 터전일 뿐 아니라 길고양이에게도 삶의 터전이다. 길고양이가 사회일원으로 인정받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바란다.

열매는 나무의 것이다

세시봉

안나연 (서울 뉴스팀장)



우리 사회는 '헬렌 캘러와 설리반 선생님'이나 '맹모삼천지교' 일화를 언급하며 교육자와 학부모가 갖는 중요성을 언급한다. 개인의 자질을 끌어냄에 있어 그가 역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게끔 돋는 것은 교육자의 역할이다. 그러나 꽃과 열매를 피워내는 것은 나무이고 결실은 나무의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컬링 은메달을 성취한 '팀김(김은정, 김영미, 김경애, 김선영, 김초희)'이 최근 폭로한 감독 및 지도자의 실태는 경악스러웠다. 방과 후 활동을 기반으로 한 선수진의 화합을 무너뜨리고 김은정 선수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려는 시도가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김초희 선수를 대신해 김민정 감독이 팀의 일원으로 참여하려고 했으며, 심지어 선수들은 감독진의 사적 행사에 동원돼야 했다. 감독 개인의 영달을 위해 팀을 사유화 하려는 시도가 명백히 드러났다. 이는 비료가 열매를 텁내 자신의 것이라 말한 것과 같다.

실력 양성에 교육자의 역할을 빼놓을 수는 없다. 교육은 한 그루의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돋는 토양이다. 그러나 교육자의 역할은 재능을 갖고 낚을 수 있도록 돋는데서 그쳐야 한다. 치열히 일궈낸 성취에 따른 결실인 상금을 갈취하거나 일방적으로 팀에 합류할 자격은 없다. 김민정 감독은 감히 열매를 텁해, 종국엔 제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

교육자의 자기만족을 위한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드문 일은 아니다. 지난 목요일엔 2019학년도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에 있었다. 취지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나, 우리 사회의 요구 탓에 압박이 짙다. 그 무게에 짓눌려 삶을 포기한 이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당장 작년에는 성적이 오르지 않자 심리적 압박을 못 이겨 바다에 뛰어든 사례가 있었으며 재작년엔 '의대를 가야한다'는 부담에 4수까지 하다 아파트에서 투신한 수험생도 있었다. 수능이 끝난 해방감 끝에 이어지는 "오늘 한강 물 따뜻하나"는 비릿한 자조는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아찔하다. 개인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는 배경에는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액세서리로 사용하기 위해 명문대나 특정 학과를 종용하는 학부모가 있다.

이들은 대체로 자녀의 성취를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분명한 인격체인 자녀를 개인의 소유물로 여기기도 한다. 그 때문에 자녀가 일궈낸 노력의 성취를 자신을 빛내기 위한 보석으로 취급한다. 폭언을 일삼고 상금을 빼돌린 감독진과 자녀의 성공을 기원하는 부모를 등치시키는 시도가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단순히 성공을 기원하는 것 이상으로, 성공을 통해 부모로서의 자신을 뽐내려 한다면 그 본질은 김감독의 만행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열매는 나무가 가진 제 나름대로의 빛과 향을 담아낸 결과다. 누군가의 액세서리가 될 수 없다.

사랑하는 자녀, 늘 지켜보는 제자가 노력과 인내 끝에 결과를 일궈내는 것이 기특한 마음은 안다. 다만 열매는 어디까지나 나무가 흙독한 겨울을 견뎌냈기 때문에 맺은 것이다. 그것을 비료의 것이라 착각하는 순간 열매는 제 맛과 향을 잊을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 라도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쪽측상단 기사제보



습생 및 유학생, 기본유권자에서 제외/중대신문, 2018.11.12.) 선거 공고 및 회의록, 학내언론이 한국어로 쓰여 있는 한 유학생은 선거 정보 수집 및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배경에서 이러한 논의가 진행됐다. 또 일부의료·보건 단과대학 학생의 외부 실습 기간이 투표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투표를 변동을 줄이기 위해 기본 유권자에서 제외했다. 일각에선 선거권 침해란 비판이 제기됐다.

이화여대 한국음악과가 커리큘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개인시간까지 침해하고 교수의 언어폭력이 있었다고 드러났다.(한국음악과 교수 권리 남용 문제 감사 착수/이대학보, 2018.11.12.) 전공필수 수업 '한국악', '한국음악 전공설기'에선 1학년이 해당 과목 수업 전후로 도우미를 해야 했다. 교수진이 성차별적 발언 및 원손잡이 차별 등 인격모독을 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6만 원의 음악캠프 참가비는 캠프에 참가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강제됐다.

고려대 정경대에서 주관한 인권주간 프로그램에 서 '한남'이라는 용어가 사용돼 논란이 불거졌다.(정경대 인권주간 '한남' 논란/고대신문, 2018.11.12.) 정

경대 학생회는 청소년 인권을 주제로 부스에 마련된 일기장에 청소년 시절 겪은 인권침해사례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행사장에서 사용된 일기장은 이후 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됐다. 그 과정에서 '한남', '한남몽탕이'란 표현이 여과없이 게시되며 "남성에 대한 혐오표현이 학생 대표기구의 공식 매체를 통해 드러났다", "성 대결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선 지난 2013년 지정된 흡연구역 때문에 현재까지도 흡연자와 비흡연자 사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ERICA캠퍼스 흡연 구역 지정 5년…눈치 보는 흡연자, 불편한 비흡연자/한대신문, 2018.11.11.) 캠퍼스 내 흡연구역은 25곳이나, 위치가 학생 통행이 빈번한 길목인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비흡연자 측에선 혐연권을 주장하며 흡연구역의 위치가 인적 드문 곳이여야 함을 주장했다. 흡연자 측은 정당한 곳에서 흡연을 함에도 비흡연자의 시선 때문에 불편함을 느꼈다는 사례가 제시됐다. 학교 측은 내년 초 총학생회와의 논의를 통해 흡연 구역을 정비할 예정이라 답변했다.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숙 | 편집장 최평규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 경기도 02-441-7317(미래기획)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경희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양대로 1732(서천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뉴스

교육환경 개선·공간배분 등 3개 선본 치열한 공약 소개

안나연 기자 na@knu.ac.kr

【서울】 제51대 총학생회(총학) 후보로 나선 3개 선본이 참여한 공약설명회가 지난 15일 진행됐다. 출마한 선본은 가나다순으로 '경희대로' 선본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와 김영우(호텔경영학 2016) 부후보, '더함' 선본 김도엽(정치외교학 2016) 정후보와 최지선(아동가족학 2017) 부후보, 그리고 '메이커(Make_KHU)' 선본 임선구(경영학 2014) 정후보와 박창민(정보디스플레이학 2017) 부후보다. 청운관 207호에서 6시 30분부터 약 1시간간 가랑 진행된 공약설명회에서 각 후보자는 주요 공약 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설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 송태현(경영학 2014) 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됐다. 각 선본에게는 공약을 소개하는 15분과 질의응답을 진행할 수 있는 5분이 주어졌다. 공약 소개는 추첨에 의해 더함, 메이커(Make_KHU), 경희대로 선본 순서로 이어졌다. 공약설명회는 제50대 총학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송출됐다.

세 후보자 모두 교육권 강화에 대한 공약이 주요했다. 졸업이수학점이 축소돼 경쟁률을 높였던 5개 단과대학이 기존 130에서 120학점을 이수하는 것에 대한 대처, 성적 책정 근거를 숨김없이 보여주는 성적공개제도와 단과대학별 교육 시스템 개선에 대한 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성적공개제도는 더함, 메이커, 경희대로 모두 도입할 것을 언급했다.

더함 김도엽 정후보는 "졸업이수학점 축소가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로만 이루어져서 아쉽다"며 "대안적인 교육 서비스 방안을 학교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대 B0(성적이 B0 이상인 수강생이 전체 수강생의 40%이하가 되도록 평가하는 제도), 호텔관광대 실습수업 확대 등 단과대학별 시급한 문제를 총학 차원에서 말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메이커 임선구 정후보는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에 반해 강좌 수는 고정적"이라며 "단과대학별로 부족한 강의에 대한 보충을 학교에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등의 성적책정 근거를 공개하는 '세부성적평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교육과정에 학생 의견을 반영하는 TF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희대로 김수혁 정후보는 "졸업이수 학



좌측부터 순서대로 경희대로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정후보, 더함 김도엽(정치외교학 2016) 정후보, 메이커 임선구(경영학 2014) 정후보다.

제51대 총학생회 후보자 주요 학내사안에 대한 공약			
졸업이수학점 축소	경희대로 (김수혁 정후보, 김영우 부후보)	더함 (김도엽 정후보, 최지선 부후보)	메이커 (임선구 정후보, 박창민 부후보)
공간 배분	학교 측에 보상 요구 • 공용공간 활성화 • 남학생 휴게실 증설	대안적 교육 서비스 요구 • 문과대학 공간확보 프로젝트 • 강의실 예약제 실시 • 남학생 휴게실 증설	교육과정에 학생 의견 반영 위한 TF 설치 • 공간 활용 논의하는 학교 주체 간담회 요구
성적공개제도	도입 • 반납제도와 연계 • 리모델링 통해 '제3열람실' 신설	도입 체크아웃 시스템 도입	'세부성적평가제도' 도입 • 총여학생회 폐지 • 성평등위원회 신설
열람실 사석화	정보없는 자치기구 다수 재편성 및 논의 예정		소모임, 동아리, 학회 활동 지원 위해 경희동아리대축제 진행
학생 자치활동			

점 축소에 대한 학교 측의 대응과 보상을 요구하겠다"며 "또한 단과대학별로 적정 등록금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이어 "연구, 교육 예산이 축소된 것에 대한 대응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간문제 해결안도 제시됐다. SPACE21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며 지난 1학기부터 일부 단과대학이 신축관으로 이전했다. 이로 인해 구 이과대 건물, 구 한의대 건물에 대한 공간 배분 문제가 주요한 공약으로 언급됐다. 더함과 메이커 선본은 학교와의 대화를 해결책으로 꼽았다. 실질적인 방안으로 더함은 '문과대학 공간확보 프로젝트', '강의실 예약제' 도입, 남학생 휴

게실(남휴) 증설을 공약했다. 경희대로는 교내 공간을 개선해 남휴를 증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에도 후보자가 나오지 않은 총여학생회(총여)를 비롯한 자치기구 전반에 대한 공약도 이어졌다. 더함 김 정후보는 "지금도 후보자를 내놓지 못한 것은 총여의 책임"이라며 "자체 회칙도 부재하며, 금진적 여성단체를 지원하여 소모적 논쟁에 빠져있는 현실"이라 지적했다. 이어 "총여 폐지에 대해 공론화 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점을 도출해내고, 성평등위원회(성평등위)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경희대로 김 정후보는 "활동 및 역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자치기구가 많다"며 "학내 다양한 특별기

구, 자치기구에 대한 재편성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19학년도면 개교 70주년을 맞는 우리 학교의 축제도 언급됐다. 더함 김 정후보는 "문화에 꿈이 더해지는 축제를 만들겠다"며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식적인 협조전을 발행해 학생 참여를 도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메이커 임 정후보는 "최대규모의 대동제를 보이겠다"고 말하며 "시간적인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전부터 기획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리 간의 교류는 물론, 미대·음대·무용대가 모일 수 있는 '경희예술제'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경희대로 김영우 부후보는 "경희

대로'라는 공약명에 맞게 우리학교만의 색을 드러내겠다"며 "배리어프리존과 가족 존을 축제에 마련해 진정한 의미의 화합을 이룩하겠다"고 전했다.

가장 먼저 공약 설명을 시작한 더함 김 정후보는 "교육이 살아나야 미래가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박규석(한의학 2015)씨는 공약으로 내건 성평등위 신설을 언급하며 "후보자가 생각하는 '성평등'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 정후보는 "생물학적인 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는 것이 성차별이라 생각한다"며 남학생 휴게실 부재를 예로 들었다. 끝으로 김 정후보는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껏 학생 자치에 관심이 없었다"며 "그러나 이제 누구보다 의지가 생겼기에 믿어달라"는 말을 하며 질의 했다.

두번째로 공약설명을 진행한 메이커 임 정후보는 '교내 운동시설 개선'을 주요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천연잔디가 조성된 대운동장을 언급하며 "인조잔디로의 전환은 2년 뒤에나 이뤄질 수 있으나 지금부터 학교와의 협의를 진행해 신속한 전환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웅(정치외교학 2015)씨는 "최근 인조잔디의 유해성이 언급되고 있는데 인조잔디로 바꾸려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임 정후보는 "경기장 등에 천연잔디를 사용한 예를 보면 시합 외엔 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봉쇄한다"며 "지속적인 운동장 이용을 위해선 인조잔디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희대로는 공약 설명 시간 내에 주어진 공약을 모두 설명하지 못했다. 김 부후보는 "시간 관계상 준비한 공약을 전부 소개하지 못해 아쉽다"며 "남은 유세기간 동안 더욱 보강해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겠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경희대로는 학생 자치에 경험 있는 후보자임을 강조하며 "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경희대로를 실현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보이며 끝마쳤다.

공약설명회에 참석한 최정민(국문학 2018)씨는 "총학 후보자가 정책을 직접 얘기하는 것을 보니 학생 자치에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라며 "앞으로는 후보자가 설명한 공약을 얼마나 구체화하는지가 관건"이라며 설명회 참석 소감을 전했다.

중선관위 송 위원장은 "유례없이 3개의 선본이 경쟁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더욱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을 끝으로 공약설명회를 마무리했다. 오는 20일과 21일에 각각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2018 목련상, 영예의 주인공을 공모합니다

경희의 역사와 전통 위에 미래대학의 비전을 구현하는 교수 및 직원을 목련상의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는 목련상은 교육, 연구, 실천 부문에서 탁월한 성취를 이룬 구성원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경희의 '학문과 평화'를 높인 업적을 기념으로써 진취적 학풍과 역동적인 대학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목련상은 경희의 오늘이자 내일입니다. 경희 구성원 모두가 목련상의 성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약 발전을 거듭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교육, 지구적 파급력을 가진 연구, 더 나은 인간과 세계를 위한 실천이 '경희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구성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접수일시 : 2018년 11월 1일(목)~11월 22일(목)
- 대상 : 교수, 직원(개인 및 단체)
- 시상분야 : 교육, 연구, 실천(3개 부문)
- 시상인원 : 부문별 약간 명
- 추천방법 : 첨부한 추천서 작성 후 제출(본인 및 타인 추천)
 1. 방문 : 서울캠퍼스 생활과학대학 602호 커뮤니케이션센터
 2. 우편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생활과학대학 602호 커뮤니케이션센터
 3. E-Mail : pr@knu.ac.kr
- 선정절차 :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 선정
- 수여식 : 2018년 12월 중 <Magnolia 2018-1부 목련회의>에서 시상
- 문의 : 커뮤니케이션센터 정민재 02)961-0024~6
- 자세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목표·내용·방식·평가가 상호작용할 때 교육은 '혁신'

미래교양리포트⑤: 교양 나침반을 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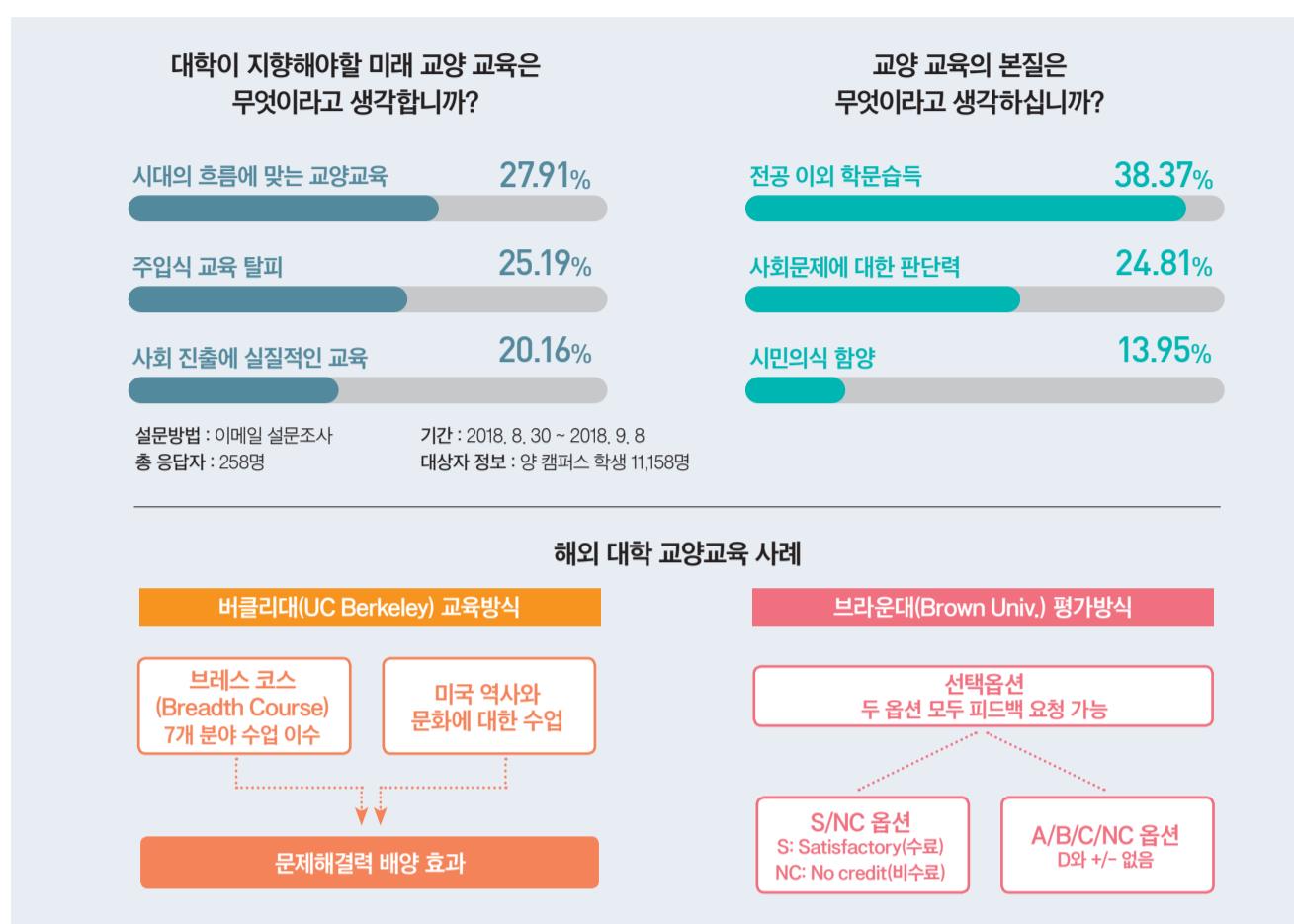
대학주보 특별 취재팀 khunews@knu.ac.kr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대학도, 교육도, 교양교육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는 교양의 가치를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 출범 7년, 우리신문은 후마의 어제와 오늘, 나아가 미래 가치를 짚는 것을 시작으로, 교육 내용, 교육방법, 평가방식으로 나눠 '당면한 현실 속에서 교양 교육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살펴본 미래 교양교육의 지향점을 정리했다. 학생들은 미래교양교육이 다양한 학문의 배움터가 돼야한다고 답했다. 우리신문이 후마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은 교양교육의 본질로 전공 이외의 다양한 분야의 학문 습득을 가장 많이 뽑았다. 전문가들 역시 '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꼭넓게 공부하는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그 속에서 대학 미래교양교육이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에는 융합적 사고뿐만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의 함양도 포함됐다. 교육 전문가들은 융합적 사고가 전제될 때 비로소 비판적 사고가 함양될 수 있다고 말한다. 비판적 사고는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할 때 갖춰지며 정해진 틀을 깨고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실용을 쫓았던 과거와는 달리 현대에서는 융합과 비판을 실현하는 교양교육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교양교육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위해 집단, 사회, 나아가 지구에 대한 이해와 융합적 사고를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도정일 전 후마 대학장은 "미래교양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와 융합적 사고가 궤를 이뤄 함께 함양될 때 학생들은 종합적 세계관을 구축하게 되며 이는 곧 문제해결력과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덧붙여 "학생들에게 심화된 전공 교육만을 가르치는 일은 전문화된 바보를 육성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교양전문가들 역시 융합의 가치를 강조하며 문제해결력을 갖추는 것을 교양교육의 목표라고 입을 모았다. 즉, 여기서의 문제해결력이란 심화된 전공 지식영역의 일이 아닌 것이다. 현대 사회는 '정답'이 아닌 '해법'을 낼 수 있는 사람을



교양교육에도

시대의 변화 반영 필요,
현대 사회는 '정답'이 아닌
'해법'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원해

원한다.

이를 교육 내용에 녹이는 것은 대학이 당면한 숙제다. 우리신문은 빨 빠르게 숙제를 해결한 타 대학의 교양교육 사례를 살펴봤다. 브레스 코스(Breadth course)제도를 운영하는 버클리대에선 화학, 수학 등 일곱 개 분야 수강이 필수다. 또 미국 역사와 문화에 관한 수업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해 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공동체 속에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문제 해결력을 갖는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버클리대의 교육목표와 관련 있다.

국내에는 전남대의 '미디어 문화와 디자인'이 있었다. 이는 미디어, 문화와 예술, 디자인, 소프트웨어공학을 접목하여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융·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양과목이다. 실제로 이 수업에서는 다양한 전공의 1,2학년 학생들이 협업을 진행하고 각기 다른 전공 교수 4명이 팀티칭 방식으로 교수해 융·복합의 가치를 실현한다.

한국U리닝연합회 정현재 사무총장은 "같은 교육 내용도 어떻게 가르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교育방법은 교육목표 달성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교육법의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교수법 개발을 위해 연구를 지속하고 있는 사례와 교수법 적용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점을 짚었다. 한국교양교육학회 홍성기 학회장은 "학생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해야 교양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생들의 주체적 학습을 위해 플립러닝과 스마트러닝을 각각 도입한 카이스트와 한국외대의 사례를 살펴봤다.

플립러닝 개념을 구체화한 카이스트의 '에듀케이션 3.0'은 온라인 강의와 더불어 토큰·협동형 과제, 실험을 비롯한 오프라인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는 학생이 수업의 준비와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업의 주체성을 높인다. 한국외대는 지난 4월 지식 출판원을 지식출판콘텐츠원으로 변경하고 적극적인 스마트러닝 개발에 나섰다. 스마트러닝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용이하게 하고 개인별 맞춤 학습을 제공한다. 이는 창의적 학습 환경의 토대로 문제 해결력 발전의 바탕이 된다.

교수법의 개선도 강조되지만 학생들의 참여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교양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교육방법의 혁신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 참여를 이끄는 것이다. 기존의 수업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예가 플립러닝과 스마트러닝이다.

교양교육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가방식도 변화를 피할 수는 없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평가 방식의 혁신은 교양교육의 목표 달성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동안의 '평가'는 학생들이 학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이는 곧 평가가 더 이상 수치로서 학생들의 학업적 주체성을 저해하지 않고, 피드백으로서 학업의 주체성을 세우는데 기여할 때 교양교육의 목표 실현이 가능함을 이야기한다.

버지니아대 교육전문가 류태호 교수는 평가에 몰두하는 현재의 교육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4차 산업 혁명으로 융·복합의 문제에 직면하게 됨에 따라 문제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평가 분야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평가는 교육의 끝이 아닌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예시로 역량기반학습(Competency based learning)을 통해 학습 내용에 대한 이해도와 수련도를 평가하는 방식을 설명했다. 이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고 교수가 학생들의 학습과정에 개별적 피드백을 주는 방식과 Pass/Fail 옵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각각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학습과정에 참여하고 성적 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

우리신문이 준비했던 4편의 미래교양리포트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변화'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구성원이 갖춰야 할 소양도 변한다. 이 때문에 현대의 대학교육, 특히 교양교육의 목표, 내용, 방식, 평가가 서로 상호작용하며 변화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는 미래사회 구성원을 배출하고자 하는 대학의 숙명이기도 하다. (특별 취재팀=최명규, 안나연, 이후승, 김지원, 안수민 기자)

연재 순서

- 미래교양리포트① 후마 어제와 오늘
- 미래교양리포트② 교육 내용의 지향점
- 미래교양리포트③ 교수법의 혁신
- 미래교양리포트④ 평가는 교육의 시작
- 미래교양리포트⑤ 교양 나침반을 켜라



2018학년도 경희역사기록물 공모전 개최 안내

경희기록관에서는 '2018학년도 경희역사기록물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경희기록관

가. 참가대상: 경희대학교 관련 역사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 부서 및 개인
나. 대상 기록물: 경희대학교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

문서류	공문서, 간행물, 팸플릿, 포스터, 각종 종서, 강의노트, 서적 등
시청각자료	사진, 필름, 슬라이드, 음반, CD, 비디오테이프 등
박물류	벳지, 상패, 행사기념품, 우승컵, 우승기, 패�드, 의류 등

다. 기간: 2018년 11월 5일(월) ~ 12월 7일(금) 18:00 마감

라. 기록물 접수처: 경희기록관 사무실(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4층 406호)

마. 우수 기증자 시상

- 심사결과 발표: 2018년 12월 21일(금)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시상: 수상자에게 일시 및 장소 개별통지
- 시상 내역
 - 대상 (1명): 상장 및 상금 30만원
 - 최우수상 (3명): 상장 및 상금 20만원
 - 우수상 (5명):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참가자 전원: 경희기록관 기념품

바. 기타

- 공모전에 제출한 기록물은 반환하지 않으며, 경희기록관에서 영구보존
 - 개인 또는 단체(기관, 부서, 동아리 등) 응모 가능
 - 사진파일 등 전자기록물의 경우 e-mail 접수 가능: 문의처 참조
 - 각 부서에서 보관 중인 행정문서류 및 행사 관련 기록물 적극 환영
- 사. 문의처: 중앙도서관 경희기록관 02)961-0759 / e-mail: archives@knu.ac.kr

특집

필기노트도 역사가 된다…우리가 만드는 경희의 역사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nu.ac.kr

지난 1999년, 우리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아 중앙박물관 산하에 '경희역사자료실'을 설립했다. 이는 대학 기록물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당시 사회 분위기와 개교 50주년이 맞물려 이뤄진 결과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과 비교해 내실이 부족했다. 업무 범위가 역사 기록물 및 시청각 기록물 수집·관리에만 한정돼 문서를 포함한 학내 전반 기록물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결국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대학 기록물 관리를 위해 지난 2010년, 중앙도서관 산하 '경희기록관'이 출범했고 2013년에 경희역사자료실과 통합됐다.

우리학교와 관련한 기록물을 수집, 정리, 보존하는 것부터 정보의 디지털화까지 경희기록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물을 수집·관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모전이다. 공모전은 예산 문제로 진행되지 못했던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를 제외하면 경희기록관이 출범한 이후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경희기록관 남기원 계장은 공모전에 대해 "모든 학내 구성원으로부터 우리학교와 관련된 그 어떤 것이든 다 받는다"며 "지난 3년간 가치 있는 기록물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2018년 경희기록관 공모전은 현재 진행 중이며 다음달 7일에 종료된다.

그동안의 공모전을 통해 받아본 기록물 중 남 계장은 1955년 졸업앨범, 2007년 작성된 레포트, 1987년 작성된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문건, 그리고 수업노트를 소개했다. 1955년 졸업앨범은 김지선 학생이 경희대 동문이었던 할아버지의 유품을 기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희기록관은 그동안 보유하지 못했던 1955년 졸업관련 문건을 확보할 수 있었다.

지난 2013년 공모전에서 기증된 당시 치과대학 조재오 교수의 학창시절 수업노트도 눈길을 끌었다. 남 계장은 "조 교수님이 우리학교 치과대학 1-2회 졸업생이신데 그 당시 수업을 들으며 필기했던 노트를 기증하셨다"며 "당시 학교생활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해준 자료이므로 대상을 수상했다"라고 말했다.

특히 남 계장은 교직원 박삼문 씨가 기증한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문건과 장광훈 학생이 기증한 2007년 레포트를 강조했다. 노동조합 문건에 관해 남 계장은 "1987년 당시 있었던 노조 소식지의 원고로 당시를 재구성할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설명했다.



1 1954년 당시 열렸던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학장(총장) 취임식 2 김지선 학생이 기증한 1955년 졸업앨범 표지
3 치과대학 조재오 교수가 학창시절에 필기한 수업 노트 4 1956년 졸업식에 발행된 졸업장

레포트에 관해서는 "지금이야 비교적 최신 자료이기 때문에 큰 가치가 없어 보이지만 이 자료가 20년, 30년이 지나면 학교생활을 증명해줄 수 있는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공모전의 의의는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남 계장은 "공모전을 통해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희기록관이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므로 공모전을 진행한다"며 "특히 교직원의 반응이 좋아 과거에는 기록물을 찾으면 그냥 버리기 일쑤였는데 지금은 기록물에 대한 많은 연락이 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중한 기록물이 버려지지 않고 경희기록관에 전달된다는 것이 공모전의 가장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 퇴직 교원과 접촉해 기증을 요청한다.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했지만 초기 반응은 매우 미

온적이었다. 남 계장은 "경희기록관이 찾고 있는 자료 중 유독 부족한 것이 교수의 연구자료"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1년에 3건 정도 기증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경희기록관이 자체적으로 발견한 기록물로는 1964년에 작성된 『개교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와 1951년에 설립자가 쓴 『문화 세계의 창조』의 초판본이 있다.

『개교기념식에 보내는 메시지』에 대해 남 계장은 "개교 15주년을 맞아 작성된 것이다"라며 "이른바 타임캡슐과 비슷하게 개교 50주년이 되면 펴보고 개교 100주년이 되면 펴보고 하나는 영구 보존하자는 취지로 총 3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본 자료는 당시 회의가 진행됐던 중앙회의실 금고에서 발견됐다.

1951년 우리학교의 설립자인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저술한 『문화세계의 창조』는 우리학교 교시의 유래가 된 책이다. 이

는 한 시중 중고 서점에서 발견됐다. 남 계장은 "우리학교 교시의 유래를 담고 있는 책이고 설립자가 쓴 책이라 원본이 당연히 학교 도서관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원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지난 2013년 중고서점에서 수소문해서 얻어낸 초판본이다"라고 말했다.

확인되지 않은 기록물도 수장고에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연히 발견되는 기록물도 있다. 그 중 하이라이트는 바로 2015년에 우연히 박스에서 발견된 설립자 조영식 박사의 학장 취임식 연설 녹취가 담긴 릴-테이프의 발견이다. 당시 우리학교는 종합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장이 아닌 학장 직함을 사용했다. 이는 1954년에 열린 행사의 것으로 교내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육성 파일이자 설립자와 관련된 가장 오래된 기록물이다.

당시 조 박사는 학장 취임의 소회를 밝히고 대학 발전을 위한 협동과 단결을 요청했

다. 하지만 남 계장은 당시 인상적인 대목으로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대학, 한국에 있어서의 어떠한 특정 대학을 흉내를 내서 그와 같은 대학을 만들고 싶다 하는 심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것은 한국의 어느 대학보다도 동양적이고, 세계적으로 내놔서 첫째가는 제일 대학과 경쟁해야 되겠다'를 꼽았다.

학장 취임식은 대학의 행사 중 큰 행사에 속한다. 하지만 당시 그 큰 행사는 지금 문과대 위치에 있던 나무판자 교사 위에서 진행됐다. 그만큼 당시 학교는 열악했다. 남 계장은 "그런 규모의 행사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 인상적이다"며 "당시의 포부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희기록관은 학생운동 관련 문서를 찾으려 하고 있다. 동문인 문대통령의 영향이 크다. 남 계장은 "문대통령이 학교에 재학하던 시절 학생운동을 이끌었다"며 "당시 문대통령이 읽었던 원고의 사본은 존재하지만 원본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학생운동을 이끌던 사람이 지금은 대통령이 되었으나 그 원고는 단순히 우리학교의 기록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 기록물이 될 수 있어 꼭 찾아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4.19에 관련한 자료도 부족하다. 우리학교 범대에 다니던 이기태 학생이 4.19 시위를 하던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서울캠퍼스 신문방송국 앞에 있는 4.19 학생운동 기념탑도 그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4.19 당시 현장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찾고 싶다는 것이 경희기록관의 입장이다. 과거 '미스 경희' 행사에서 사용된 왕관과 망토 등 학생사 자료도 찾고 있다.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사와 정신, 문화와 같은 실체가 없는 것을 구체화하여 우리학교를 알고 싶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이 경희기록관의 실질적인 역할이다. 남 계장은 "아직도 기록물은 전체의 10%만 모였다고 생각한다. 정리되지 않은 것을 배제하면 5%뿐"이라고 설명한다. 사람들은 본인이 소유한 기록물이 기록관에서 제 가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으로 기증을 꺼린다. 남 계장은 "기록물이라는 것은 기록관에 있어야 비로소 제 역할을 하며 가장 빛나는 것"이라며 "현재 사정상 기증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지만 곧 보상에 대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365일, 디자인이 반짝입니다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브로슈어에서 전단, 잡지, 신문 제작, 광고물 제작까지

언제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당신을 빛나게 해드립니다

○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



디자인은 융합 창조하는 핵심 가치

교수칼럼



김혜경

예술·디자인대학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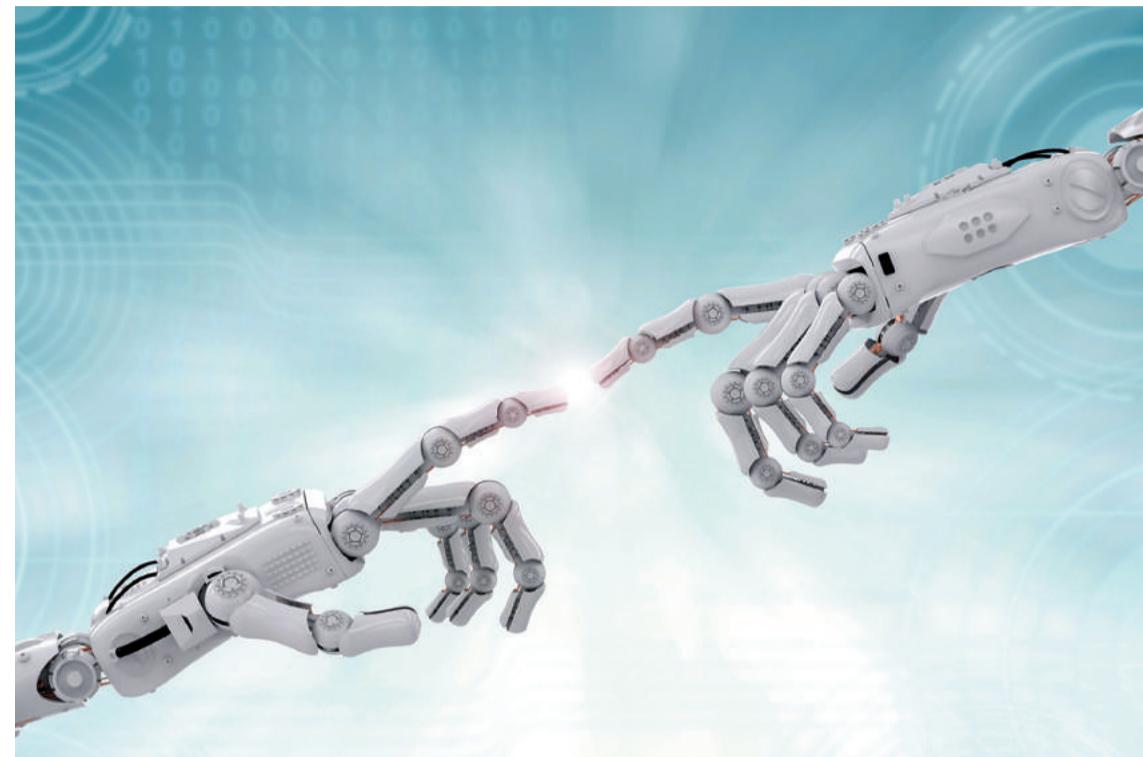
휴대폰, 자동차, 의자, 광고, 잡지 등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보이는 모든 것들 중 디자인의 손길이 달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디자인'은 따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생활 일부로 스며들어 왔다. 산업에서도 점차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디자인 산업은 그동안 꾸준히 진화해 왔다. 디자인의 역할은 진화에 따라 모습을 바꿔왔다. 한때는 기능을 강조한 적도 있었고, 제품의 외관 스타일이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한 적도 있었으며, 사용자의 경험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 디자인은 단순히 심미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것을 넘어서 혁신과 전략의 확장된 사고로 활용되기도 하고, 기술과의 융합 또는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산업의 핵심적인 가치로 진화하기도 한다.

산업과 디자인의 융합이 사회적인 학부가 된 데에는 스티브 잡스의 역할이 컸다. 아이팟이 처음 제품화 되었을 당시에만 하더라도 전자기기는 검은색 또는 회색 같은 무채색이 대부분 이었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는 빨주노초파남보 무지개 색상을 과감하게 전자기기에 도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전자기기가 주로 사용하던 버튼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휠(Wheel)방식을 도입하는 등 고정관념을 깨는 혁신적인 사고로 과감한 외형적 변화를 시도하였다.

무엇보다도 가장 획기적인 것은 하드웨어를 넘어 'iTunes'라는 음원 서비스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당시만 해도 음악 산업은 CD, 물리적 매체가 주도하고 있었으나, iTunes 서비스 시작 이후 음악 산업은 CD 중심에서 음원 중심의 산업으로 완전히 변화했다.

아이폰의 경우도 처음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 때는 사용자들이 기존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력만큼이나 융합을 가능케 하는 창조성이 요구된다. 외관적인 디자인 뿐만 아니라 기존의 환경을 연결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내는 디자인적 사고가 그 예다.

(사진=중앙일보DB)

휴대폰과 차별화된 새로운 기능만으로도 열광을 하였다. 더욱 획기적인 것은 'App Store'라는 어플리케이션 장터가 시도된 것이었다.

당시만 해도 모바일 콘텐츠 유통의 모든 주도권은 이동통신회사가 가지고 있었는데, App Store가 생기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개인 및 회사가 모바일 콘텐츠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콘텐츠의 새로운 생태계가 형성되었으며,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이동통신사 중심에서 창작자 중심의 산업으로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다.

이 두 가지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디자인의 제품의 외관을 새롭게 디자인한 것뿐만 아니라 서비스와의 융합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제품의 디자인과 서비스 융합의 결과는 전 세계의 음악 산업과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켰으며, 나아가 사용자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최근 들어 학부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생활과 산업을 이전과는 또 다르게 커다란 진폭으로 흔들어 놓고 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AI, 빅데이터, IoT 등의 생소했던 첨단기술이 점차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로 인해 제조, 유통,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우리의 생활양식 전반에 커다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은 사람, 사물, 공간을 연결하고 모든 기술이 융합하면서, 각 영역이 분리됐던 과거에는 실현이 불가능했을 여려 가지 가치들을 실현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 영역간의 경계도 점차 사라지고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연결되어 혼재된 현상도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융합 현상들은 이전에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창조할 것이다.

이렇듯 우리 삶의 방식 및 사고체계까지도 변화시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데이터간의 연결, 서비스와 생태계의 연결 등 다양한 요소들을 상상력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연결시킬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디자인 분야도 전통적인 디자인 역할을 더욱 확장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다. 기술, 사회, 환경을 연결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다른 아 니 디자인적 사고를 통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디자인적 사고는 궁극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정교한 관찰과 다양한 경험을 활용하여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도출하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관찰과 공감은 사용자의 니즈와 행동을 보다 세심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인간의 감성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고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 방식은 디자인 기획, 개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험을 다루는 비즈니스, 나아가 혁신적 전략 도출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저자이자 세계경제포럼 회장인 클라우스 슐밥은 4차 산업혁명에서의 모든 기술은 결국 인간의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디자인분야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까지 통찰하고, 그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참여마당

박범근 (정치외교학 2015)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사무국장



반갑습니다.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우 여러분, 저는 29기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학자주) 사무국장 박범근입니다. 학자주는 "총학생회 학원자주화 사업을 총괄하는 상시적 특별위원회"입니다. 이전까지 학자주는 학자 요구안을 토대로 등록금 책정, 교과과정, 교육환경 등 교육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계속된 총학생회 집행 인력의 축소라는 현상 속에서 여러 기구의 축소가 수반되었고, 학자주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학생사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의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입학금의 폐지에 따른 재정 확충 방안이 모색되고 있으며, 등록금의 인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제대로 된 지원방안이나 언어 능력 문제에 대한 대안은 마땅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올해 초 학교는 일방적인 결정으로 일부 단과대학의 졸업이수 학점을 축소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수강허용학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대학평의원회는 총장 선출제의 도입을 결의하였고, 수년간 학교를 이끌어 오신 총장님은 4선 불출마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학생사회는 이제 이러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제들에서 학생의 입장을 표명하여, 변화에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등록금 인상 근거와 사용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여, 등록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될 수 있도록 감시와 참여를 강화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 없이 재정 확보만을 위해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유학생 정원 증가에 문제의식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온 교과과정, 학사제도 개편 등 학습권과 직결된 문제에 학생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너진 학자주를 다시 세우고자 합니다. 9월 17일,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는 29기 학자주의 설립을 인준하였고, 상설 사무실을 설치했습니다. 교과과정심의위원장, 교육환경개선위원장, 예결산심의위원장, 세계문화교류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학생회칙에 명시된 위원회의 장을 임명하였고, 남은 기간 동안 달성 할 목표들을 설정하였습니다. 임기가 다한 후에도 앞선 문제에 상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구의 토대를 다지고자함이 29기 학자주의 사명입니다.

존경하는 그리고 친애하는 학우 여러분! 우리는 학원의 자주화를 통해 학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경희의 교훈이자 오랜 전통인 학원의 민주화라는 정신을 계승하여, 학생이 주인 된 학교를 만들고자 합니다. 학사제도, 교과과정 개편에 학생이 참여하여 진정한 의미의 학습권을 보장받고, 나아가 학내 모든 제도에서 학생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부당한 것에는 대응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 나가겠습니다.

학자주는 학내 문제의 최전선에서 학우 여러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은 경희를 만들어갈 토대를 다지겠습니다.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언어 습득의 비밀 - ⑤

외국어 습득 속도 서로 다른 이유는?

외국어대학
김영주(한국어학) 학장

같은 교실에서, 같은 교사에게, 같은 방법으로, 같은 시기에 외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왜 친구와 나의 결과는 다를까?

외국어 습득에서는 이에 대해 여러 변인의 영향을 얘기한다. 학습자의 지능, 언어 적성 등과 같은 인지적 변인이 한 요인이다. 동기, 성격 등과 같은 정의적 변인도 있다. 더 나아가 학습자가 해당 외국어를 접한 나이, 학습자의 모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 등이 변인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번에는 학습자의 인지적 변인 중 언어 적성과 작업 기억을 중심으로 얘기하고자 한다.

언어 습득 속도 결정짓는 '언어적성'

언어 적성은 언어를 빨리 배우는 소질을 말한다. 언어 적성은 여러 구성요인으로 이뤄진다. 공통으로 언급되는 요인을 꼽자면 새로운 소리를 구별하고 기억하는 능력, 문장에서 특정 단어의 기

능을 이해하는 능력, 언어 샘플에서 문법적 규칙을 파악하는 능력, 새 단어를 기억하는 능력을 들 수 있다. 사실 언어 적성이 연구된 배경은 학습자의 적성을 찾아 그에 맞는 강의를 제공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이었다. Wesche(1981)의 연구를 보면 분석 능력이 높지만 기억 능력이 평범한 학습자는 문법 구조 학습에서 강점을 보인 반면, 기억 능력은 좋지만 평범한 분석 능력을 지닌 학습자는 의사소통 학습에서 강점을 보였다.

학습자의 높은 언어 적성은 우수한 외국어 학습 결과를 담보한다. DeKeyser(2000)는 형가리 이민자를 대상으로 본 연재칼럼 1편에서 언급된 Johnson&Newport(1989)의 연구를 재연했다. DeKeyser는 성인과 아동을 대상으로 이민 당시 나이와 새 언어 숙달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문법적 획득과 이민 온 나이, 언어 적성 간의 관계를 살펴보

았다. 이전 연구와 같이 15세 이전 이민자 집단에서는 모어 화자 수준의 문법적 획득을 발견했다. 성인 이민자 집단에서는 높은 적성을 보인 사람이 문법적 획득에서도 우수하였으나 아동 이민자 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성인 학습자에겐 적성이 문법적 획득에 중요한 예측변인임을 의미한다.

정보 처리 능력과 '작업기억'의 관계

최근에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과 제2언어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연구가 활발하다. 작업기억력은 정보를 기억하고 처리하는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 작업기억이 영향을 주는 영역은 언어 습득에서 매우 광범위하다. 크게는 구어와 문어의 언어 능력에서부터 어휘력, 관계질 이해력, 중의적 문장 이해력과 같은 특정 문법 능력들과도 뚜렷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즉, 학습자의 작업기억력이 클수록 언어 능력, 문법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기억력은 더 나아가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에서 학습자 간 상호작용과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작업기억력이 높은 학습자는 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보였으며 구어 오류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데서도 더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가 학습자의 구어 오류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하였을 때 작업기억력이 높은 학습자는 피드백을 더 잘 알아채어 수용하고 저장하여 습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제2언어 습득 요인 밝히는 연구도 활발

최근에는 어떤 특정 언어 적성 혹은 작업기억력이 제2언어 습득 수준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내어 교육에 반영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Linck(2013) 등의 연구

에서는 여러 인지적 요인과 우수한 영어 습득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연상기억력, 음운단기기억, 암묵적 학습 능력이 최고 수준 학습자의 성취를 예측하는 요인들로 나타났다.

학습자 인지 능력 향상 훈련도 필요

언어 적성과 작업기억력과 같은 학습자의 인지 능력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분도 있으나 개발해 키우고 또 잘 다루어 유지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인지 활동 경험들은 인지 능력을 향상하고 또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십자말풀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 익히기, 일에 대한 책임감 등이 뇌를 활발하게 하고 인지 능력을 보호하는 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한, 확고한 삶의 목적, 부지런한 생활, 성실성 등도 인지 능력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효과를 낸다고 한다.

‘시도해보자’는 당찬 생각, 위안소 진열관에 변화 일으키다

이서림 기자 silee1001@knu.ac.kr

아시아에서 발견된 일본군 위안소 중 최대 규모인 중국 난징 ‘리지상 위안소 유적 진열관(진열관)’의 번역 오류를 고치고 한국어 팜플릿을 제공한 우리학교 학생이 있다. 리지상 진열관은 규모와 그것이 담고 있는 역사에도 불구하고, 관람객에게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번역 오류 또한 존재했다. 교환학생 신분으로 중국 유학 중인 설동준(언론정보학 2014) 씨와 남다희(중국어학 2015) 씨는 이를 바로잡고 한국어 팜플릿 300부를 만들어 진열관에 기증했다.

중국에는 한국과 역사가 겹치는 장소가 많다. 난징은 그 대표적인 장소다. 1937년, 난징을 점령한 일본군은 불과 6주 만에 수십 만 명의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했다. 극동국제재판 판결에 따르면 이때 희생자는 최소 12만 명에 달한다. 다른 한편에서 일본군은 이곳 난징에 현재까지 발견된 위안소 40여곳 가운데 최대 규모의 위안소를 세웠다. 조선인, 중국인, 일본인 여성들을 가리지 않고 건물 8개 동에 나눠 넣고 끌없이 능욕했다. 중국은 이 참상을 보여주기 위해 지난 2015년 연말 난징대학살 추모기념관 분관 형태로 진열관을 개관했다.

설동준 씨는 이렇듯 양 국의 역사가 교차하는 장소에 주목했다. 난징대학살 추모기념관은 그 규모와 전시물의 고증이 충실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참극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분관 형태로 운영되는 진열관은 그렇지 않았다. 설 씨가 방문해 본 전시관 내 설명은 영어와 중국어 설명이 주를 이뤘다. 한국어는 미미하게 설명을 보태고 있을 뿐 피해상황에 관한 한국어 안내판은 딱 한 개였다. 그나마 있던 작은 한국어 전단지는 역사에 대한 설명보다 기념관 설립·개조 과정 등 난징 정부의 공헌에 관한 내용밖에 없었다.

설 씨는 진열관 개관에 큰 역할을 한 故 박영심,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설명에 집중했다. 2003년 11월, 북한의 박영심 할머니는 중국에 직접 방문해 리지상 위안소의 존재를 확인하고 증언을 남겼다. 이 덕분에 그동안 폐가로 방치되던 위안소는 진열관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 설 씨는 진열관의 설립에 기여한 할머니들에 대한 설명과 피해 상황조차 영어와 중국어로만 적혀 있는 것을 보며 한국어 설명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꼈다.

문제를 깨달은 설 씨는 ‘무작정’ 계획했다. 설 씨는 “내가 아닌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태도보다는 일단 시도해보자는 패기 넘치던 생각으로 시작했다”고 말했다. 설 씨의 구상은 경희꿈도전장학의 도움을 받아 구체화됐다. 마찬가지로 교환학생에 와 있던, 중국어에 능통한 남다희 씨의 도움을 받아 ‘누군가는 해야 할 일, 부족하지만 우리가 해보자’라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다행히 진열관 측의 반응도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다. 그렇지만 막상 진열관과 본격적으로 소통이 이루어진 후에는 매일이 고민이었다. 설 씨는 “팸플릿이 전시용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담당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떡할까, 기증을 완료할 수 있을까 등 걱정과 불확실함에 부딪혔다”라고 말했다.

중국어를 책으로만 공부한 설 씨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남 씨였다. 중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고 중국어학을 전공한 남 씨 덕분에 의사소통이 원활했다. 남 씨는 진열관 측에 계획을 전달하고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았다. 남 씨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말투가 아니라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했다”며 “내용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어휘 하나하나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매일 팜플릿을 수정하고 보충하는 과정을 거쳐 팜플릿 시안을 완성했다.

완성된 팜플릿을 본 진열관의 반응은 좋았다. 진열관은 이를 최종 검토한 뒤 중국어 팜플릿도 함께 기증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덕분에 현재 진열관에는 중문판과 한국어판 팜플릿이 모두 배치돼 있다. 진열관 측은 “본 진열관이 한국뿐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많이 알려지면 좋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개괄적인 내용만 있던 과거 팜플릿과 달리 새 팜플릿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진열관 사진, 구조, 자료, 진열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개요와 더불어 특히 2006년 작고한 故 박영심 할머니의 소개에 한 페이지 가량을 할애했다. 이전 안내에 있던 진열관 명칭이나 어법상의 오류 등 알맞지 않은 부분도 수정해 정확하게 표기했다.

설 씨는 “유적지에 한 나라의 언어가 있다는 것은 그 나라가 역사에 애정과 관심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팜플릿의 설명을 수정했다는 것을 넘어 한국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미약하게나마 일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남 씨 역시 “우리가 유민인도 아니고 거창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역사를 알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다. “같은 아픔을 공유했던 한국과 중국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기회였다”고 입을 모은 두 사람은 “팸플릿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열관을 눈여겨보고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은 계기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들은 이미 다음 목표도 정해뒀다. 광저우 황포군관학교에 한국어 팜플릿을 기증하고 광저우 임시정부청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고 있다. 광저우 황포군관학교는 김봉원의 열단장과 열사들이 한국인 200여 명에게 학비를 받지 않고 교육을 제공했던 기관이다. 하지만 이 곳 역시 한국어 설명이 부족하다. 심지어 광저우 임시정부청사는 현지인들의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어 이곳이 역사적 장소라는 작은 안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양국 정부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두 사람은 “한국에 많이 알려져 있진 않지만 이곳 역시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현재 제작 단계인 팜플릿을 들고 직접 찾아갈 예정이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설 씨는 유네스코 아시아문화유산 위촉위원회에 되어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힘을 키운다면 역사적 분쟁이 생겼을 때 우리 역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역사를 인정받으면 보다 객관적인 기준이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과 중국의 역사가 맞닿는 부분에서 CSR을 진행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남 씨는 한국의 대외적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TV프로그램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를 보며 국가 간의 소통을 돋는 매개체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는 남 씨는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이 한국에 갖는 편견을 깨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모습을 알리고 싶다”며 “나라 간의 편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소통했고 조금이나마 한국의 좋은 이미지를 구현해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이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혁신에 찬 모습을 보였다.

지난 연말, 문재인 대통령이 충칭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한 사진이 화제에 올랐다. 더 거슬러 가면 TV예능프로그램 등에서 주목한 아픔의 역사들도 술하다. 하지만 그 중심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의 흔적이 즐비하다. 주목받지 못했던 역사의 주변부에서, 작지만 단단한 도전을 이어나가는 그들의 행보를 응원한다.



① 설동준(가운데) 씨와 남다희(오른쪽) 씨가 리지상 위안소 진열관에 직접 제작한 팜플릿을 기증하고 있다. (사진= 설동준·남다희 제공)

② 故 박영심(오른쪽) 할머니는 리지상 위안소 진열관 설립에 크게 기여했다. (사진= 중앙일보 DB)



나와,
빨래하자

차원이 다른 빨래방


CryptoPia
+ 코인워시